



전국 서점
베스트
셀러

인문 분야
1위

갈 길을 잃었을 때 《논어》를 읽어라

50의 지천명 (知天命),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!

공자의 말과 삶에서 공허한 오십의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다. 공자는 사십에 의혹이 없었고 오십에 천명을 알았다고 하지만, 오십이 넘어서야 비로소 왕의 부름으로 정치 일선에 나섰고 육십 중반까지 이론 것 없이 이국을 떠돌아야 했다.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기보다 학문에 정진하며 말을 글로 옮겨 전파함으로써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했다. 50, 흔들리고 공허한 게 당연하다. 공자가 그랬듯 ‘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’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된다.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 오십의 지천명이다.

공이치는 인생을 다잡아 주는 공자의 말
오십에 읽는 논어



최종업 지음 | 값 16,000원